DOI: https://doi.org/10.28977/jbtr.2012.10.31.205

<서평>

Codex Sinaiticus: The Story of the World's Oldest Bible

(D. C. Parker, London: The British Library, 2010)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이 책은 시내산 사본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내산 사본 프로젝트(The Codex Sinaiticus Project)의 일환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사본 학자인 파커(D. C. Parker) 교수(Birmingham 대학)에 의하여 집필되어 출판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신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 시내산 사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우선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할 때 책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주제별로 다시 정리했다. 요약된 내용에 해당하는 책의 페이지는 독자들이나 연구자들 책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인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문장 끝의 ( ) 속에 명시했다.

2.1. 시내산 사본의 제작

시내산 사본은 콘스탄틴이나 콘스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제작된 성경 사본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본은 받아 적으면서 제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다(54-55). 고대의 서적 제작은 현대와는 달리 주문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대량 생산을 할 필요도 없었고, 받아 적는 방식이 보고 쓰는 것보다 반드시 더 효

* 숭실대학교 강사, 신약학.

과적이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54-55).

시내산 사본에 든 비용을 solidius(4.5그램 정도의 금화)로 계산하면, 총 19.7 solidi 정도였을 것이다(62). 이것은 5톤(US tons) 가량의 밀을 살 수 있는 비용이었다(62). 당시에 제사장들의 연간 수입이 20 내지 25 solidi였을 것이므로(63), 시내산 사본을 주문한 사람은 제사장의 1년치 연봉 정도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2.2. 시내산 사본의 필사자들

시내산 사본은 아마도 4명의 필사자에 의해 필사되었을 것이다(49). 그들은 A, B1, B2, D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49). 그 중에 한 명(D)은 아마도 가장 전문가로서 선임자였을 것이며, 다른 한 명(A)은 가장 많은 부분을 필사하였을 것이며, 또 다른 필사자들(B1, B2)은 전문성이 비교적 떨어진 작업을 했을 것이다(1-2, 49-50).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한 것을 교정했다(2).

이 사본에 담긴 각 권의 끝에는 책 이름과 장식적 디자인으로 된 코로니스(coronis)가 있는데, 필사자마다 코로니스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필체의 차이와 함께 어느 필사자가 어느 부분을 필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74).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필사자 A는 995페이지, B1은 206페이지, B2는 118페이지, D는 167페이지의 분량을 각각 맡아서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49).

2.3. 시내산 사본이 필사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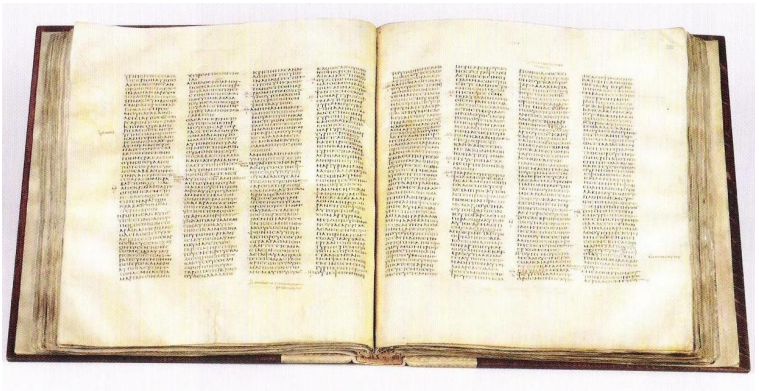
필사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가이사랴(Caesarea)나 이집트(2), 또는 소아시아였을 것이다(7).

시내산 사본은 오리겐의 헥사플라로부터 안토니누스(Antoninus)가 필사하고 팜필루스(Pamphilus)가 교정한 오래된 사본에 대조하였다고 에스드라 2서와 에스더서 끝의 콜로폰(colophon)에서 밝힌다(81). 제롬에 의하면 팜필루스는 가이사랴의 주교 유세비우스의 후원자였다(83). 그러므로 이 콜로폰은 시내산 사본이 가이사랴(어쩌면 가이사랴 도서관)에서 교정되었음을 암시한다(83). 그러나 콜로폰까지도 필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시내산 사본이 필사된 장소가 가이사랴였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한다(84-85).

2.4. 시내산 사본의 외양

<서평> *Codex Sinaiticus: The Story of the World's Oldest Bible* / 신현우 207

시내산 사본의 크기는 한 쪽이 가로 43cm이며 세로 38cm로서(8), 현존하는 헬라어 성경 사본들 중에서 가장 크다(2). 이 사본에 사용된 양피지의 두께는 평균 116.2마이크로미터로서 지금까지 사용된 양피지들 중에 가장 얇다(2, 46). 사용된 잉크는 갈색과 붉은 색이다(48). 본문의 대부분은 갈색으로 기록되었으며, 장의 번호 등의 숫자나 시편의 제목들은 붉은 색으로 썼다(48). 이 사본은 원래 1486페이지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822페이지(일부만 남은 것 포함)만 남아 있다(7).



시내산 사본 요한복음 5:6-6:23 (Q80-F3v and F4r)

이 사본은 한 쪽이 네 개의 단(column)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서와 지혜 문헌은 두 개의 단으로 되어 있다(8). 이것은 시가서와 지혜 문헌에 등장하는 평행법을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100).

이 사본에 사용된 글자체는 대문자이다(52). 글자체의 정교한 우아함과 장식적 요소들은 이 사본의 필사된 시기가 360년이나 약간 이후라고 판단하게 한다(54). 그 이전에는 글자체에 그러한 정교한 우아함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 후에는 글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54).

시내산 사본은 하나님, 예수, 다윗, 사람, 그리스도, 주, 아들, 아버지, 성령, 이스라엘, 십자가, 하늘 등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줄여서 약식으로 쓰는데, 이것은 *nomina sacra*라고 알려져 있다(71-72). 이러한 약식 표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서도 발견된다(72).

2.5. 시내산 사본의 사용

시내산 사본은 사용되면서 독자들에 의하여 매우 많이(27,305 곳에서) 수정

되었다(79). 이것은 페이지마다 평균적으로 약 30군데 수정된 것이다(3). 수정들 중에 대부분은 6명의 수정자들에 의한 것이다(3). 수정자들은 필사자의 실수를 고칠 뿐 아니라 다른 사본과 비교하여 본문을 고치기도 했다(86-87). 신약보다는 구약 부분에서 수정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구약이 (초기 교회의 성경으로서) 매우 높은 지위를 누렸을 뿐 아니라, 구약 사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인해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89).

시내산 사본의 독자들은 본문을 회중 앞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읽기 쉽도록 구두점을 추가하기도 했다(71). 이 사본에는 아랍어로 된 설명이 추가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 사본이 12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으로 옮겨와 있었다는 증거이다(119).

2.6. 시내산 사본의 구성

시내산 사본에는 구약과 구약 외경(마카비 2서와 3서는 제외), 신약,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와 바나바의 편지(the Epistle of Barnabas)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드라 2서, 사사기, 예레미야 애가, 헤르마스의 목자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8-9). 그러나 신약 전부와 에스더, 토빗(Tobit), 마카비 1서와 4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지혜서(Wisdom), 집회서(Sirach), 욥기, 바나바의 편지는 전체가 남아 있다(9).

2.7. 시내산 사본의 본문

시내산 사본에 담긴 구약과 구약 외경은 70인역이다. 70인역은 주전 3세기 내지 1세기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34). 70인역의 본문과 현존하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의 본문의 차이는 70인역이 사용한 고대 히브리어 사본 본문의 특성 때문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종종 번역자의 해석에 기인하기도 한다(35). 물론 시내산 사본에 담긴 70인역 본문이 70인역의 원본문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35).

예레미야서의 경우 70인역 헬라어 본문과 맛소라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 다르다(98). 분량도 70인역의 예레미야서는 맛소라 사본에 담긴 히브리어 본문의 예레미야서보다 8분지 1 가량 짧은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약 2,700단어를

덜 가진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것이다(98-99). 이것은 본문의 전달 단계에서 내용을 빠뜨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맛소라 본문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본문을 보존한 결과일 수 있다(99). 사해 사본들 중에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은 맛소라 본문과 일치하지 않고 70인역과 일치하기도 함으로써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99).

시내산 사본은 마가복음 16:9-20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요한복음 7:53-8:11도 가지고 있지 않다(109-110). 이 부분들은 시내산 사본이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필사자들이 추가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추가 현상은 기록된 복음서들이 아직 확정된 실체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11).

시내산 사본은 본문 비평 작업을 하다보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본임이 드러난다(93).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3에서 시내산 사본은 "자랑하고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본들은 "불사르도록"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113).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랑"에 관하여 자주 말하며, 고린도전서 1:31은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한다(113). 그러므로 여기서도 바울이 자랑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113). 또한 바울이 5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여 죽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나중에 필사자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3).

2.8. 시내산 사본의 이동

시내산 사본은 이탈리아의 자연 철학자 비탈리아노 도나티(Vitaliano Donati)의 일기에 의해 언급된 바, 그가 1761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본 아주 큰 성경 사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20). 1845년 4월에는 영국인 찰스 맥도날드(Charles Kerr Macdonald)가 방문하여 그가 4세기 것이라 추정한 매우 오래된 사본(아마도 시내산 사본)을 보았다고 한다(121).

시내산 사본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본이었기에, 콘스탄틴 폰 티셴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는 시내산 사본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다(129). 그러나 그는 이 사본을 연구한 최초의 현대 서양인이었다(129). 그는 1844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을 방문하였는데, 화로에 불태워지려는 사본 조각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했다(129). 그러나 그는 아마도 도서관 바구니를 땔감 바구니로 착각했을 수 있다(130). 양피지는 잘 타지 않고 열보다는 냄새를 내기에 양피지를 태웠을 리는 없다(130). 또한 티셴도르프가 수도사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130). 그러므로 티셴도르프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131).

티셴도르프는 1859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을 다시 방문하여 시내산 사본을 빌려 필사할 수 있었다(136-139). 그는 이것을 토대로 복제판을 만들어 출판했다(139). 시내산 사본은 1862년 10월 29일에 러시아 관리의 손으로 넘겨졌으며(142), 1868년 7월 5일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 시나이(Sinai) 지역을 관할하는 대주교 칼리스트라토스(Kallistratos)는 오토만 제국에 대사로 와 있는 러시아 관리 이그나티프(Ignatiev)에게 시내산 사본은 티셴도르프의 손에 넘겨진 순간부터 러시아 황제에게 헌정된 것으로 성 캐더린 수도원 공동체는 간주한다고 통보했다(143). 시내산 사본 기증을 위한 공식적 서명은 1868년 9월에 이루어졌다(146). 러시아 쪽에서는 9천 루블과 여러 개의 훈장들을 대주교와 수도원 공동체에 감사의 표시로 전했다(146). 이러한 기증 과정에서 티셴도르프의 역할보다는 성 캐더린 수도원과 러시아의 오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146). 전통적 해석은 시내산 사본이 서방 세계로 오는 과정에서 티셴도르프를 영웅이나 악한으로 간주하지만, 시내산 사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했음을 보여준다(147).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시내산 사본은 영국에 100,000파운드에 판매되어 1933년 12월 27일에 대영박물관에 넘겨졌다(159).

2.9. 시내산 사본 프로젝트

시내산 사본 프로젝트 이전에는 시내산 사본을 접하려면 직접 시내산 사본을 보거나, 1840년대에 만들어진 티셴도르프의 시내산 사본 판본을 보거나, 레이크(Lake)의 복사판을 보는 길뿐이었다(168). 그러나 이제는 웹사이트(www.sinaiticus.org)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시내산 사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168-169). 이 사이트는 2008년 7월 24일에 개설되었으며, 2009년 7월 6일에 런던(주요 부분), 라이프지히(티셴도르프가 처음 가져온 부분), 성 페터그부르그(영국에 넘겨지지 않은 부분), 성 캐더린 수도원(1975년에 새로 발견된 조각들)에 흩어져 현존하는 시내산 사본의 본문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성되었다(5, 181-182).

3. 평가

이 책은 시내산 사본에 관해 연구한 결과 새로 발견된 내용을, 사본학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을 위해 알기 쉽게 전달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수도원과 같은 사

본학자들의 상아탑 속에서나 존재하던 시내산 사본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내산 사본을 웹사이트에 담아 누구나 이 사본에 접근하게 한 시내산 사본 프로젝트의 대중화 정신을 공유한다. 세계 사본학계의 석학 중에 하나인 파커(D. C. Parker)는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이러한 대중적인 책을 통해 사본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이 책은 시내산 사본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소개한다. 글자체와 장식적 요소에 입각하여 이 사본이 필사된 시기를 360년이나 약간 이후로 추정한다. 이 사본의 제작 비용은 총 19.7solidi 정도로서 5톤(US tons) 가량의 밀을 살 수 있는 비용이었음도 알려준다. 또한 4명의 필사자가 이 사본을 필사했는데, 필사자 A는 995페이지, B1은 206페이지, B2는 118페이지, D는 167페이지의 분량을 각각 맡아서 필사하였음도 밝힌다. 필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마도 가이사랴(Caesarea)나 이집트였다고 추측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 사본에 사용된 양피지의 두께가 평균 116.2마이크로미터로서 요즈음 책에서 사용되는 종이처럼 얇다는 것도 흔히 접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또한 이 사본에 추가된 아랍어로 된 설명을 토대로 이 사본이 12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었다고 추측한 것도 흥미롭다.

아울러 이 책에서 저자는 사본학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필사실 구술 이론(한 사람이 읽고 여러 필사자들이 받아 적으며 사본을 제작했다는 이론)을 의심한다. 고대에는 책이 주문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대량 생산이 불필요했으며, 느릿느릿 받아 적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된다. 이러한 의심은 사본학과 본문비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찰일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견들을 소개한다. 티셴도르프가 성 캐더린 수도원에 가서 시내산 사본을 보기 전에 그 곳을 방문하여 이미 그 사본을 본 서양인들(V. Donati, C. K. Macdonald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소개하며 티셴도르프는 시내산 사본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시내산 사본을 연구한 최초의 현대 서양인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이 책은 시내산 사본이 러시아 황제에게 기증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티셴도르프보다는 성 캐더린 수도원과 러시아의 오랜 유대관계가 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책은 시내산 티셴도르프가 1844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을 방문하였을 때 화로에 불태워지려는 사본 조각들을 구해냈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아마도 도서관 책 바구니가 땔감 바구니로 착각될 수 있었다는 점과 양피지는 잘 타지 않고 열보다는 냄새를 낸다는 점,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티셴도르프가 아랍어를 사용하는 수도사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 토대하여 티셴도르프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지

적한다. 이러한 비평적 연구를 통하여 파커는 시내산 사본을 구한 영웅으로 우상화된 서양인 티센도르프의 그늘로부터 이 사본을 해방시켜 온 세계인의 사본이 되게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일반 대중에게도 충분히 가볍고, 전문가에게도 충분히 무거운 책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책이 소개하는 시내산 사본에 담긴 성경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큼 쉽지만, 전문가들에는 충분히 어렵고 심오하다. 또한 사본학의 영성을 세상에 전하는 이 책의 시도는 수도원의 영성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시내산 사본의 여행과 닮았다.

<주요어>(Keywords)
시내산 사본, 사본, 본문 비평, 티센도르프, 성 캐더린 수도원.
Codex Sinaiticus, manuscript, textual criticism, Tischendorf, St. Catherine Monastery.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8월 17일)

<Abstract>

Book Review-***Codex Sinaiticus: The Story of the World's Oldest Bible***

(D. C. Parker, London: The British Library, 2010)

Prof. Shin, Hyeon Woo
(Lecturer, Soongsil University)

This book transmits the newly researched information on Codex Sinaiticus to the people in general who are not familiar with textual criticism. For this purpose, the special content wears a popular form. As a result, Codex Sinaiticus that has been in the monastic ivory tower of text-critics has been delivered to the people of the world. In this way, it has in common with the spirit of the Codex Sinaiticus Project that made Codex Sinaiticus available to everyone via the internet (www.sinaiticus.org). In this book, D. C. Parker achieves the goal of reaching out to the people to populariz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d especially the study of Codex Sinaiticus.

Many interesting aspects of Codex Sinaiticus are reported in this book. The codex is dated to "360 or a little later" on the basis of its script and decorative elements. The cost of its making is calculated to be 19.7 solidi, the value of which is about 5 US tons of wheat. Four copyists may have been involved in making the codex. Copyist A copied 995 pages, copyist B1 206 pages, copyist B2 118 pages, copyist D 167 pages. The place of its origin may have been Caesarea or Egypt. The parchment used for the codex is on average 116.2 micrometer thin (as thin as paper). The Arabic glosses in the margin of the codex indicate that it has already been kept in St. Catherine monastery between 12th century and 18th century.

In this book, D. C. Parker doubts the theory of manuscript mass-production by dictation, since there was no need for mass-production in late antiquity, and since dictation was probably not efficient for manuscript production. This doubt may potentially have an implication for textual criticism.

Although this book targets non-specialized groups of people as its readers, its content is quite special. This book contains tons of fresh information. According to this book, C. von Tischendorf was not the person who

discovered Codex Sinaiticus but the first modern westerner who studied the codex. Before his visit to St. Catherine monastery, other westerners, such as V. Donati, C. K. Macdonald, seem to have seen the codex in the monastery. Further, not Tischendorf but the long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St. Catherine monastery and Russia had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donating the codex to the Russian emperor. In this book, Parker critically reads the well-known story of Tischendorf's saving manuscripts from being burned up in his 1844 visit of the St. Catherine monastery. Parker points out that parchment does not burn easily but merely produces smell. Tischendorf may have had problem in communicating with Arabic-speaking monks, and have further confused library baskets with fuel baskets. By this critical interpretation, Parker liberates Codex Sinaiticus from the shadow of the western hero Tischendorf into the hands of everyone in the world.

This book is easy and interesting enough for non-specialist readers yet deep and fresh enough for specialists. Such a characteristic coheres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Bible which is the content of Codex Sinaiticus. It is easy for everyone to read but profound enough for Biblical scholars to study. The attempt of this book to hand on the insight of textual studies to the people resembles the journey of Codex Sinaiticus that transmits the spirituality of the monastery to the world.